

‘很A很A’의 문법적 특징

朴 淑 慶*

<目次>

I. 들어가는 말	III. ‘很A很A’식 출현의 원인
II. ‘很A很A’의 문법적 특징	1. ‘很’의 문법화(文法化)
1. 통사적 특징	2. 상태형용사의 유화(類化)
2. 의미적 특징	IV.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아래의 예문에서 ‘很A很A’는 ‘很A’의 중첩인가, 아니면 수사(修辭)적 효과를 위한 단순한 첩용[疊用], 즉 구[詞組]의 중복인가?

- (1) 媽媽帶我出城去看爸的墳。媽拿着很薄很薄的一羅兒紙。
- (2) 耕牛在地上走得很慢很慢，幾乎看不出他們是在走動。

《形容詞用法詞典》(鄭懷德, 孟慶海. 1991)에 수록된 형용사 중 ‘很’의 수식을 받으며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단음절 형용사 156개를 대상으로 ‘북경대학 중국 언어학 연구 센터[北京大學漢語言語學研究中心]’의 현대중국어 자료 은행[現代漢語資料庫]을 검색한 결과, 그 중 아래와 같이 78개, 약50%의 단음절 형용사가 정도부사 很과 함께 ‘很A很A’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¹⁾. 특히 이미 하나의 낱말로 독립되었거나 독립되는 과

* 東西大學校 中國語學科 副教授

정, 즉 문법화과정 중에 있는 ‘很多’, ‘很久’, ‘很長’, ‘很少 등의²⁾ 출현 빈도수가 다른 ‘很A’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³⁾

很多很多(672) 很久很久(372) 很遠很遠(257) 很長很長(109) 很大很大(98)
 很小很小(96) 很少很少(58) 很深很深(45) 很高很高(34) 很好很好(34)
 很晚很晚(31) 很早很早(31) 很難很難(27) 很低很低(23) 很重很重(21)
 很輕很輕(21) 很老很老(17) 很近很近(16) 很慢很慢(15) 很累很累(15)
 很美很美(11) 很淡很淡(10) 很短很短(9) 很對很對(8) 很苦很苦(6)
 很冷很冷(6) 很沉很沉(5) 很坏很坏(4) 很薄很薄(4) 很旧很旧(4)
 很恬很恬(4) 很寬很寬(4) 很凶很凶(4) 很亮很亮(4) 很快很快(3)
 很紅很紅(3) 很忙很忙(3) 很彎很彎(2) 很窄很窄(2) 很暗很暗(2)
 很黑很黑(2) 很肥很肥(2) 很黃很黃(2) 很亂很亂(2) 很厚很厚(2)
 很强很强(2) 很粗很粗(2) 很細很細(2) 很濃很濃(2) 很胖很胖(2)
 很急很急(2) 很香很香(1) 很瘦很瘦(1) 很軟很軟(1) 很熱很熱(1)
 很白很白(1) 很直很直(1) 很丑很丑(1) 很藍很藍(1) 很傻很傻(1)
 很滑很滑(1) 很熟很熟(1) 很透很透(1) 很慘很慘(1) 很怪很怪(1)
 很疼很疼(1) 很臟很臟(1) 很燙很燙(1)

수식구조인 ‘很A’의 ‘很A很A’는 그 중첩의 형식, 문법 의미 및 문법적 특징 등이 역시 수식구조로서 ABAB로 중첩되고 있는 ‘通紅’, ‘雪白’, ‘漆黑’ 등 상태형용사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通紅通紅’, ‘雪白雪白’ 등을 상태형용사의 중첩형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很A很A’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극히 일부 논문

- 1) google을 검색해보면 위 78개 외 ‘很笨很笨’, ‘很臭很臭’, ‘很嫩很嫩’, ‘很硬很硬’, ‘很干很干’, ‘很濕很濕’, ‘很松很松’, ‘很滿很滿’, ‘很空很空’, ‘很新很新’ 등 다수의 형용사가 ‘很A很A’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도수는 높지 않으나 이를 통해 대부분의 단음절 형용사가 ‘很A很A’의 형식으로 중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朴淑慶, <‘許多’, ‘好多’, ‘很多’, ‘不少’, ‘很少’의 문법적 특징>, 《中國言語研究》25(2007), 167-186쪽. 朱德熙, <“很久”, “很長”, “很多”>, 《漢語學習》49(1989), 1-2쪽.
- 3) 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를 나타낸다.

서 이러한 형식의 존재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하고 있다.⁴⁾ 이는 ‘很A’의 대부분이 낱말이 아닌 구인 것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런데 북경대학의 현대중국어 언어자료를 보면, ‘通紅通紅’(25), ‘雪白雪白(31)’ 등 상태형용사 중첩형의 출현빈도수가 ‘很多很多’, ‘很久很久’, ‘很遠很遠’, ‘很長很長’ 등 일부 ‘很A很A’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事情要一件一件地辦”, “稿件一遍一遍讀.”의 ‘一件一件’과 ‘一遍一遍’ 역시 수량구인 ‘一件’과 ‘一遍’의 중첩이지만, 대부분의 논저는 이들을 모두 중첩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很A很A’의 문법적 특징과 그 지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胡飛君이 형용사 중첩의 문법 의미를 정도의 심화라는 기준(量)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성질형용사에 은닉된 ‘정도의 표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정도’의 의미가 드러나 있는 ‘通紅’ 등의 중첩은 사실상 중첩이 아니며, 수사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단순 중복인 첩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很A很A’ 역시 첩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상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太多太多’, ‘好多好多’, ‘最多最多’, ‘極多極多’ 등과 같이 다른 ‘단음절 정도부사와 단음절 형용사’의 중첩 형식 역시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북경대학 ‘현대중국어 자료 은행’의 풍부한 언어자료를 활용하여 ‘很A很A’의 문법적 특징과 그 출현의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4) 형용사의 각종 중첩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元傳軍의 <現代漢語形容詞重疊式研究>(2002)에서도 ‘很A很A’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李宇明의 <論詞語重疊的意義>, <語法研究彙>(第一版; 北京: 商務印書館, 2002.12) 92쪽에 “非常非常(聰明)、最大最大、很高很高、頂紅頂紅” 등 부사 ‘非常’과 정도부사를 가지는 수많은 형용사 詞組도 이렇게 중첩으로 정도의 강화를 나타낸다.”라는 기술이, 關敏의 <試談程度副詞“很”與“非常”功能的異同>, <語言文字應用>(2006:12), 66쪽에 “很”은 직접 “很很”으로 중첩할 수 없지만, ‘很久很久’, ‘很遠很遠’ 등처럼 ‘很’의 수식을 받는 성분과 함께 중첩할 수 있다. 정도의 심화를 나타낸다.”라는 짧은 기술이 보이고 있다.
- 5) 胡飛君, <<型世言>>詞語重疊研究>(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 2007)에서는 중첩의 기본 단위를 낱말로 한정하고 있다. 4-5쪽.

II. ‘很A很A’의 문법적 특징

1. 통사적 특징

대부분의 중첩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중첩의 형식, 중첩 전과는 다른 문법 의미, 문장론적 기능이나 어순의 변화 등을 가진다. 단음절 성질형용사의 중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첩 후 명사 수식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부사어로 충당될 수 있고, 대비의 의미가 없는 구문에서도 자유롭게 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량구와의 어순 역시 중첩 전과 달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⁶⁾ 그런데 다음의 예문을 보자.

- (3) a: 我看你的臉通紅。 → * 我看你的臉通紅的。
 b: 他的臉通紅通紅。 → 他的臉通紅通紅的。
 (4) a: 他凍得冰涼。 → * 他凍得冰涼的。
 b: 手脚凍得冰涼冰涼。 → 手脚凍得冰涼冰涼的。
 (5) a: 他買來了一張雪白的紙。 → 他買來了雪白的一張紙。
 b: 他買來了一張雪白雪白的紙。 → 他買來了雪白雪白的一張紙。

위 (3-5)의 a와 b의 비교에서 보는 것과 같이, ‘通紅通紅’, ‘冰涼冰涼’, ‘雪白雪白’ 등 상태형용사의 중첩형은 중첩 전과 마찬가지로 술어, 보어, 관형어로 사용되며, 다만 술어와 보어로 충당될 때는 중첩 전과 달리 뒤에 ‘的’을 부가할 수 있다. 즉 중첩 전·후 문장론적 기능의 차이나 어순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很A很A’의 문장론적 기능 역시 기본적으로 ‘很A’와 동일하다. ‘很A’는 문장에서 술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로 사용될 수

6) ‘白紙’, ‘輕放’이라고는 하지만 ‘白手’, ‘輕攔’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白白的手”, “輕輕的攔”이라고는 할 수 있다. 비교, 대비의 언어 환경이 아닐 때 “眼睛小.”라고는 할 수 없지만 “眼睛小小的.”라고는 할 수 있다. “一雙很白的手.”라고는 할 수 있으나 “很白的一雙手.”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첩식은 “白白的一雙手”와 “一雙白白的手” 모두 가능하다.

있으며, 이 점은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很A很A’ 역시 마찬가지이다.

- (6) 那個樓梯很長很長的, 一路滾下來, 他媽摔得頭破血流....
- (7) 月餅的來歷, 嫦娥, 故事很多很多的, 今天就不多說了。
- (8) 這個比例尺已經放得很大很大的了。
- (9) 醫生把室內光線調得很暗很暗, 徹底解除了靜芝的紗布。
- (10) 李昂會很慢很慢地把衣服扣子一個一個系上了。
- (11) 她說: “謝謝你”, 聲音很輕很輕地搖搖頭。
- (12) 那是一座很高很高的山, 橫亘在寶慶和衡州的交界處。 .
- (13) 而且在前面大概是在這個位置上, 還有一個廢棄的一個水塔, 很高很高的一個水塔。

술어(6-7), 보어(8-9), 부사어(10-11), 관형어(12-13)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6-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술어와 보어로 사용될 때 ‘的’을 부가하는, 즉 중첩 전과 다른 문법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通紅通紅’ 등 상태형용사의 중첩형과 유사하다. 그런데 예문(12-13)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량구와의 사이에서 중첩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인 어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반드시 수량구의 뒤에 위치해야 하는 ‘很A’와 달리 ‘很A很A’는 수량구의 앞, 뒤에 모두 위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문 (12)에서 “一座很高很高的山”은 “一座很高的山”으로 체환해도 비문이 되지 않지만, (13)에서 “很高很高的一个水塔”은 “很高的一个水塔”으로 체환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很A很A’가 ‘很A’와 달리 수량구와의 어순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점, 이 점은 성질형용사의 중첩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형용사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很A很A’의 문장론적 기능은 모두 ‘很A’에서 온 것이지만, 그렇다고 ‘很A很A’가 ‘很A’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很多’는 술어, 보어, 관형어,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으나 부사어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

은데, ‘很多很多’⁷⁾ 역시 술어, 보어, 관형어,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사어로 충당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很大’는 원래 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로 충당이 되는데, ‘很大很大’가 부사어로 사용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很高’, ‘很好’, ‘很近’ 등 상당수의 ‘很A’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원래 모두 부사어로 충당이 될 수 있으나, ‘很高很高’, ‘很好很好’, ‘很近很近’ 등이 부사어로 충당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즉 ‘很A很A’가 ‘很A’에 비해 부사어의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很A很A’에 출현하는 형용사 78개를 대상으로, 이들이 술어와 부사어로 충당되는 비율과 ‘很A’의 구식으로 술어와 부사어로 충당되는 비율을 각각 조사하였다. 그 결과 78개 모두 ‘很A很A’와 ‘很A’의 형식으로 술어로 충당이 되는 반면, 부사어로 충당되는 비율은 달랐다. 부사어로 충당된 ‘很A’에 출현하는 형용사의 수는 31개(약 39.7%)인데 반해, 부사어로 충당된 ‘很A很A’에 출현하는 형용사의 수는 모두 14개(약 18%)에 불과하다⁸⁾. ‘很A很A’의 부사어 충당 기능이 ‘很A’에 비해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很A’에 비해 부사어의 기능이 비교적 강한 ‘很少’를 예로 들어 보면, 이러한 사실은 보다 더 명확해진다. 북경대학 ‘현대중국어 자료 은행’에서 ‘很少’의 주 기능은 술어이며(약 58%), 다음이 부사어(약 36%), 관형어(4%), 보어(1%)의 순이다. 그런데 ‘很少很少’는 대부분 술어로 사용되고 있으며(약 87.9%), 다음이 관형어와 보어(각각 약 5.2%), 부사어(약 1.7%)의 순이다.⁹⁾ 즉 부사어의 기능은 약화된 반면, 술어의 기능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7) 鄰近的煤炭三十二工程處工人宿舍區裏的狗叫，間隔很長地響起一聲兩聲。這就是那個中午留在我記憶裏的模樣。她就那樣子，很深很深地吸了一口氣，然後很長很長地吐了一口氣。

8) 很久很久，很少很少，很晚很晚，很早很早，很難很難，很慢很慢，很快很快，很低很低，很重很重，很輕很輕，很長很長，很凶很凶，很亮很亮，很深很深的 14개이다.

9) ‘很少很少’는 출현 총수 58회 중 술어로 사용된 예는 51회이며, 관형어 3회, 보어 3회, 부사어로는 다음과 같이 한 번 밖에 보이지 않는다. “很少很少有人天生得到一副好牌：不同一般的家庭背景、超常的智力……”

러한 현상은 ‘很A’의 주 기능이 술어이며, ‘AA’의 주 기능이 부사어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즉 단독 부사어와 술어의 충당 능력이 약한 단음절형용사가 ‘AA’로 부사어의 기능을, ‘很A’로 술어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很’의 허화(虛化)로 ‘很A’의 의미가 약화되자 다시 ‘很A很A’로 중첩하여 그 약화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很’의 허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2. 의미적 특징

어떤 형식의 중첩이든지 중첩 후에는 중첩 전과 다른 일정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형용사의 중첩이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문법서와 논문에서는 “정도 의미의 심화”를 형용사중첩의 문법미로 보고 있다. 즉 형용사의 중첩을 양(量)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성질형용사가 지니고 있는 “정도”의 양이 중첩을 통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식의 형용사중첩은 ‘很A’/‘很AB’로 대체될 수 있으며, 대체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중첩의 문법적 의미를 “정도의 심화”라고 전제할 경우, ‘很A很A’는 중첩이 분명하다. 다음을 보자.

(14) 他的嘴唇和臉頰頓時刷白 —— 很白很白。

(15) 芸就是形容黃的顏色, 非常黃的顏色, 我們說是芸黃, 芸就是一種很黃很黃的顏色, 他說蒼之華, 就芸其黃矣。与花朵都從紅色變成了這個枯黃。

예문(14)를 통해 ‘刷白’은 ‘很白很白’에, (15)를 통해 ‘很黃很黃’은 ‘非常黃’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黃’과 ‘白’의 어휘적 의미를 배제하고, 이들

10) ‘早, 晚, 多, 少, 緊, 忙, 快, 慢, 難, 久’ 등 단독 부사어로 충당될 수 있는 단음절형용사는 전체 단음절형용사의 약 28.2%에 불과하다 그러나 ‘AA’ 중첩식의 부사어 충당비율은 58.1%이다. 元傳軍, <現代漢語形容詞重疊式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2), 27쪽.

을 정도의 단계로만 배열을 하면, ‘很白很白’ = ‘刷白’ = ‘非常黃’의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刷白’은 ‘很白’보다, ‘非常黃’은 ‘很黃’보다 분명 더 높은 단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刷白’과 동일한 ‘很白很白’, ‘非常黃’과 동일한 ‘很黃很黃’은 ‘很白’, ‘很黃’보다 더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도의 심화”가 형용사중첩의 문법의미라면, ‘很A很A’는 ‘很A’의 중첩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모든 형용사의 중첩이 ‘很A’/‘很AB’로 대체될 수 있는나이다. 사실상 형용사 중첩의 문법의미를 “정도의 심화”라고 기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정도부사+형용사’의 형식으로 중첩형의 문법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즉 ‘長長’은 “很長”으로, ‘大大’는 “很大”로 기술하는 식이다. 이러한 기술 방법이 마치 모든 형용사 중첩과 ‘很A’/‘很AB’가 “정도의 강화”라는 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통사적 기능까지도 동일하다고 호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6) a: 照片高高地挂在牆上。

b: * 照片很高地挂在牆上。

예문 (16)에서 ‘高高地’를 의미적으로 동일한 언어 단위인 ‘很高地’로 바꾸었는데 비문이 된다. 李琳은 위 예문에 근거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형용사중첩의 문법의미가 “정도의 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는 “상태의 묘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¹⁾ 汝淑媛 역시 “상태의 묘사”를 형용사 중첩의 문법의미로 보았으나, “정도의 심화”가 중첩형의 부차적 문법의미임은 인정하고 있다.¹²⁾ 사실상 강한 묘사성은 형용사 중첩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이다. 예문을 보자.

11) 李琳, <“很+adj”、“真+adj”及“AA的”語法功能辨析>, 《北方論叢》(2005.3), 64쪽.

12) 汝淑媛, <對外漢語教學中相近表達式的用法研究>,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2007), 135-137쪽.

- (17) a: 圓圓的小臉上, 濃濃的眉毛下, 兩顆亮晶晶的大眼睛, 高挑的小鼻子, 紅潤潤的小嘴, 真是惹人喜愛。
 b: 很圓的小臉上, 很濃的眉毛下, 兩顆很亮的大眼睛, 高挑的小鼻子, 很紅的小嘴, 真是惹人喜愛。
- (18) a: 再看那雙細嫩的小手, 白白胖胖的, 十個小指頭就像是泡漲了大花生仁兒兩個、三個地接在了一起似的。鼓鼓的、白白的、嫩嫩的可愛極了。
 b: 再看那雙細嫩的小手, 很白很胖, 十個小指頭就像是泡漲了大花生仁兒兩個、三個地接在了一起似的。很鼓、很白、很嫩的可愛極了。

위 (17-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에서 ‘AA’는 확실하게 강한 묘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b와 같이 ‘AA’를 ‘很A’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묘사성은 확실하게 떨어진다. 다음을 보자.

- (19) a: 把牛喂得很肥很肥, 肥得象渾身披了緞子, 摸着溜溜光, 比老婆的肚子還光還滑。
 b: 把牛喂得非常肥, 肥得象渾身披了緞子, 摸着溜溜光, 比老婆的肚子還光還滑。
- (20) a: 這樣過了一萬八千年, 天就很高很高, 地就很厚很厚, 盤古氏当然也成了頂天立地的巨人:
 b: 這樣過了一萬八千年, 天就非常高, 地就非常厚, 盤古氏当然也成了頂天立地的巨人:

(19-20)의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很A很A’는 그 묘사성이 ‘AA’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很A’보다는 강하다. b에서와 같이 ‘很A很A’를 ‘非常A’ 혹은 ‘很A’로 대체하면 문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很A很A’에 비해 묘사성이 떨어지며, 운율 역시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묘사적 특성”을 과연 중첩의 문법 의미, 혹은 대표적 문법 의미로 볼 수 있는가?

胡飛君은 묘사는 화용의 측면에서 본 특징이며, 중첩의 문법적 의미는 은닉되어있는 형용사의 정도성이 중첩을 통해 드러나는 것, 즉 “정도성의

표출"이라고 보았다. 성질형용사는 ‘有點兒A’, ‘很A’, ‘非常A’ 등 모든 종류의 정도를 은닉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도부사나 중첩식에 의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通紅’, ‘雪白’ 등과 같이 이미 정도의 의미가 드러난 상태형용사는 언어의 내적 제약으로 인해 더 이상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¹³⁾ 같은 맥락으로 중첩 역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通紅’ 등 상태형용사는 ‘通紅通紅’, ‘雪白雪白’ 등을 통해 수사적 효과와 운율은 생기지만, 정도의 의미가 심화되지는 않으며, 심화된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심리적인 것으로서 중첩이 아니라 첩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¹⁴⁾ 앞서 보았듯이 ‘很A很A’가 ‘很A’보다 강한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很A很A’가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 역시 ‘很A’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을 보자.

(21) 天是很大的, 很大很大, 大得沒有依托; 雲又是很重的, 很重很重, 重得隨時都會塌下來。

위 예문은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구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해서 강조구인 ‘是很大的’와 ‘很大很大’, ‘是很重的’와 ‘很重很重’을 점층 형식으로 사용하여 그 크기와 무게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很大很大’와 ‘很重很重’이 나타내는 정도의 폭이 결코 ‘很大’, ‘很重’과 같을 수 없으며, 최소한 강조구인 ‘是很A的’와 동일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¹⁵⁾ 즉 ‘很A很A’는 분명 객관적으로 ‘很A’보다 더 강한 정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간단히 심리적, 주관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문법의미이든, 화용의미이든, 혹은 수사적인 기법이든 형용사의 중첩

13) 朱德熙, 《語法講義》(商務印書館, 1984), 73쪽.

14) 胡飛君, <<型世言>>詞語重疊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2007), 48-50쪽.

15) 사실상 漸層法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고 크고 높게 하여 마침내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따라서 뒤에 출현하는 ‘很大很大’와 ‘很重很重’이 앞구의 ‘是很大的’, ‘是很重的’보다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형은 분명 기본식보다 “정도의 심화”, “상태의 묘사” 등의 특징을 드러내며, ‘很A很A’도 분명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胡飛君과 같이 형용사 중첩의 문법 의미를 은닉된 “정도성의 표출”로 본다면, 이미 정도부사 ‘很’을 부가하고 있는 ‘很A’는 논리적으로 중첩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很A很A’는 ‘通紅通紅’과 마찬가지로 중첩이 아닌 단순 첩용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술어로 충당된 ‘很A’에서 ‘很’이 과연 정도부사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今天很熱。”에서와 같이 술어로 충당된 ‘很A’에서 ‘很’은 정도부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도부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만 성질형용사의 술어 충당을 돕는 문법적 표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⁶⁾ 즉 “今天很熱。”의 ‘很熱’가 “今天熱。”의 ‘熱’보다 그 정도의 의미가 반드시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령 술어로 충당된 ‘很A’에서 ‘很’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今天很熱。”의 ‘很熱’가 “今天熱。”의 ‘熱’보다 그 정도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때 ‘很A’가 나타내는 정도의 폭은 최소한 ‘通紅’, ‘雪白’ 등 상태형용사보다는 약하다. 따라서 이들이 나타내는 상태성의 정도, 즉 정도 의미의 양(量)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질형용사A < 很A < ‘通紅’ 등 상태형용사

즉 ‘很A’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이 은닉한 정도의 크기로 보더라도 ‘很A’는 역시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중간 단계에 있다.

16) 楊凡, <試析作謂語的“很+adj”組合>,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28 : 3(2008.7), 78쪽. 常國萍, <程度副詞很的非程度義>, 《人文社科》(2007), 112-114쪽.

성질형용사A > 很A > ‘通紅’ 등 상태형용사

은닉성과 중첩성이 정비례한다면 은닉성이 강한 성질형용사는 중첩의 능력 역시 강하며, 역으로 은닉성이 약할수록 중첩의 능력은 약해진다.¹⁷⁾ 즉 胡飛君의 견해대로 ‘通紅通紅’의 중첩을 첩용으로 간주하더라도 ‘很A很A’는 최소한 중첩과 첩용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很A很A’식 출현의 원인

1. ‘很A’의 문법화(文法化)

현대중국어에서 ‘很’은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 매우 높은 부사이며, ‘很A’는 출현빈도수가 매우 높은 형식이다. 표면적으로는 ‘很’이 모든 위치에서 형용사가 나타내는 정도를 강화하는 정도부사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음을 보자.

- (22) a. 她很漂亮。 b. * 她漂亮。
 (23) a. 這本書很新。 b. * 這本書新。

일반적으로 성질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충당된 경우 대부분 대비의 의미를 띤다. 즉 “這本書新。”만으로는 문의 성립에 제한을 받으며, “這本書新, 那本書舊。”와 같이 대비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대비의 언어 환경이 아닌 경우, 술어인 형용사 앞에 ‘很’이 없으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성질형용사가 ‘很’의 수식을 받게 되면 이러한 문법적인 제한이 사라지며, 자유롭게 술어로 충당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술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대한 진술이나 상태를 묘사하는데 성질형용사는 그 상태성이 매우 약하기

17) 胡飛君, <<型世言>>詞語重疊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2007), 10쪽.

때문이며, 대비의 문에서 성질형용사가 단독으로 술어로 충당될 수 있는 것은 ‘대비’ 자체가 묘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즉 ‘很A’가 술어인 문장에서 ‘很’은 정도를 강화하는 부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며, 따라서 ‘很A’의 의미 역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很’은 성질형용사의 술어 충당을 돕는 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문법적 표지인 셈이다.¹⁸⁾ 따라서 본문은 ‘很A很A’의 출현이 이러한 ‘很’의 문법화, 즉 ‘很’의 허화(虛化)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¹⁹⁾

‘很’의 문법화라는 말이 ‘很’이 정도부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他是个好人。”과 “他是个很好的人。”에서와 같이 통사적으로 술어와 보어가 아닌 위치에서, “他喜歡你。”와 “他很喜欢你。”에서와 같이 술어동사의 앞에서 여전히 정도부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어(口語)에서는 이를 발음의 강·약으로 구별하고 있다. 즉 ‘很’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강하게, 반대의 경우에는 약하게 발음한다. ‘很’은 구어와 서면어(書面語)에서 모두 가장 통용되는 부사인데, 서면어로는 이러한 차이를 표현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중첩이라는 문법적 장치를 통하여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표현하고, 약화된 의미를 강화하고자 하는 언어 내재적 원인이 ‘很A很A’의 출현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很A’의 문법화, 즉 어휘화도 이를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很多’와 ‘很少’는 이미 하나의 낱말로 독립되었으며,²⁰⁾ ‘很久’와 ‘很長’ 등은 어휘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²¹⁾ 앞서 본 것과 같이 ‘很久很久’, ‘很多很多’ 등의 출현 빈도가 다른 ‘很A很A’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즉 ‘很’의 의미 약화로 인한 문법화로의 진행은, 중첩이라는 문법적 형식을 통하여

18) 楊凡, <試析作謂語的“很+adj”組合>,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28 : 3(2008.7), 78쪽. 楊凡에 의하면 ‘很’은 원래 형용사에서 정도부사로, 정도부사에서 성질형용사의 술어 표지로 변화했으며, 다시 어기조사로 변화하고 있다.

19) 문법화란 실사(實詞)의 허사(虛詞)로의 변화와 구[詞組]의 어휘화를 가리킨다.

20) 朴淑慶, <許多, ‘好多’, ‘很多’, ‘不少’, ‘很少’의 문법적 특징>, 《中國言語研究》25(2007), 166-186쪽.

21) 朱德熙, <“很久”、“很長”、“很多”>, 《漢語學習》1(1989), 1-2쪽.

약화된 의미를 강화하는 한편, ‘很’과 A의 관계를 더 긴밀히 추동하여 차츰 구에서 하나의 낱말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很A’에서 ‘很’과 ‘A’의 관계가 하나의 낱말처럼 아주 긴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很A很A’의 형식이 보인다는 사실은 최소한 이 둘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很’의 정도 의미의 약화 또는 상실이 ‘很A’의 중첩식인 ‘很A很A’ 출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很A’의 의미가 약화되었다면, ‘AA’식이 있지 않은가? 사실상 주지하다시피 ‘AA’식의 주 기능은 부사어이다. 그리고 술어로 충당될 때는 의미상 “정도의 강화”가 아닌 오히려 “정도의 경미”함을 드러낸다.²²⁾ 그리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很A很A’의 주 기능은 ‘很A’와 마찬가지로 술어이다. 그러나 ‘很A’는 중첩 후 술어의 기능은 더 강화되었으며 부사어로서의 기능은 훨씬 약화되었다. 즉 ‘很A’는 중첩을 통해 술어로 충당될 때의 의미 약화 현상을 해소하면서, ‘AA’와는 통사적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고 보여 진다.

2. 상태형용사의 유화(類化)

유화[類化]는 어떤 문법단위가 다른 문법단위의 형식, 기능, 의미 등을 모방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본문은 ‘很A很A’가 ‘通紅通紅’ 등 상태형용사 중첩형의 유화 현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AABB’

22)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2), 73-75쪽. 朱德熙는 ‘AA’, ‘AABB’식이 부사어와 보어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정도가 가중 혹은 강조되며, 술어와 보어의 위치에 있을 때는 오히려 ‘경미한 정도’를 나타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朱景松은 <形容詞重疊式的語法意義>, 《語文研究》 3(2003)에서 사람의 외모를 묘사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중첩의 문법의미는 통사상의 위치와는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胡飛君은 <<型世言>>詞語重疊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2007). 8쪽에서 표준어에서 술어와 관형어로 충당된 중첩형은 확실히 “경미”함을 나타내며, 이는 지역, 화용 및 주관과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로 중첩되는 형용사가 ‘ABAB’의 동사의 중첩형식을 모방 후 동사중첩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현상, 동사가 ‘AABB’로 중첩 후 형용사의 문법적 특징을 가지는 현상, ‘開心’, ‘小心’ 등 원래 중첩이 되지 않는 동목구조의 형용사가 ‘AABB’로 중첩되는 현상 등등²³⁾, 이러한 유화현상은 형용사의 중첩에서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很A’가 ‘很很+AA’로 중첩이 되지 않고 ‘很A+很A’로 중첩이 된 이유는, ‘很A’가 ‘通紅’과 동일한 수식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자의 인식 속에서 ‘通紅’과 동일한 형식으로 유추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很A很A’는 처음 구어에서 서면어로, 첩용에서 ‘很’의 문법화와 함께 중첩으로, 술어의 위치에서 보어, 부사어, 관형어 등 다른 통사적 위치로 차츰 확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경대학 중국 언어학 연구 센터’의 ‘고대중국어 자료 은행’에는 이미 ‘很好很好’, ‘很多很多’ 등 ‘很A很A’의 형식이 보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구어에서 나타나며, 대부분 술어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그 중 출현 횟수가 가장 높은 ‘很好很好’를 예로 들어보면, 아래 예에서와 같이 36회 모두 대화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관형어로 사용된 1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35회(약 97%) 모두 술어로 사용되었다.

(24) 秦八爺說道：“派四个有力量的嘍卒，拿着繩子，我去捆他去。”屠大爺說道：“很好很好。”

(25) 賢臣點頭說：“很好很好，千萬別傷人命。”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대중국어의 ‘很A很A’는 “對對(對)”, “好好(好)”등과 같이 대화체의 응답 구(句)에서 동의함을 강조하는

23) 元傳軍, <現代漢語形容詞重疊式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2), 20-25쪽.

24) 고대중국어에 보이는 ‘很A很A’의 종류는 다음 8개이다. 很好很好(36), 很多很多(9), 很高很高(3), 很對很對(2), 很遠很遠(1), 很大很大(1), 很小很小(1), 很短很短(1). 괄호 안은 출현 횟수이다.

단순 음절의 중복, 즉 첩용으로 보인다. 이는 “謝謝, 謝謝”를 동사의 중첩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很A很A’는 처음 이러한 첩용의 형식에서 출발하여 ‘很’의 문법화와 함께 차츰 중첩으로 발전되어진 것이며, 그 영역이 구어에서 서면으로, 술어의 위치에서 보어, 부사어, 관형어 등 다른 통사의 위치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사어와 관형어 위치의 ‘很A’에서 ‘很’은 여전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很A很A’로 중첩이 되는 현상은, 술어 ‘很A很A’를 모방한 통사상의 유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유희현상은 다음과 같이 ‘太A太A’, ‘好A好A’ 등 다른 ‘단음절정도부사+단음절형용사’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다.²⁵⁾

(26) 她低低的, 好低好低的問, 柔柔的, 好柔好柔的問。

(27) 爲了這一天, 她實在盼得太苦太苦、等得太久太久了呀!

그러나 ‘太A太A’, ‘好A好A’의 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의 수가 ‘很A很A’에 비해 현저히 적고, 사용 빈도도 ‘好多好多’, ‘好久好久’, ‘太多太多’ 등 몇몇을 제외하면 극히 낮은 편이다.²⁶⁾ 따라서 이들은 ‘很A很A’를 모방한

25) 李宇明이 중첩으로 언급한 ‘頂紅頂紅’은 북경대학의 ‘현대중국어 자료 은행’에서 2회, ‘最大最大’는 15회 보이고 있다. 그런데 ‘頂A頂A’와 ‘最A最A’에 출현하는 형용사의 수량과 빈도수가 ‘太A太A’, ‘好A好A’보다 더 낮다. 그리고 ‘단음절정도부사+쌍음절형용사’의 경우는 ‘很高興很高興’이 유일하며, 다음과 같이 2회 보이고 있다. 凱少爺以前最愛吃的! 希望你吃的時候, 有那麼一點儿表示, 她會很高興很高興的, “可只要他們設計出新東西, 我還是很高興很高興。”

26) 북경대학의 ‘현대중국어 자료 은행’을 검색하면, ‘太A太A’의 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는 다음 27개이다. 괄호 안은 출현 횟수이다. 太多太多(169), 太少太少(44), 太久太久(15), 太太太太(15), 太小太小(6), 太重太重(6), 太難太難(6), 太深太深(5), 太輕太輕(4), 太快太快(3), 太沉太沉(3), 太長太長(3), 太遠太遠(3), 太高太高(3), 太忙太忙(3), 太苦太苦(3), 太濃太濃(2), 太累太累(2), 太淡太淡(1), 太冷太冷(1), 太慢太慢(1), 太美太美(1), 太近太近(1), 太好太好(1), 太低太低(1), 太晚太晚(1), 太早太早(1). ‘好A好A’의 형식에 출현하는 형용사는 26개이다. 好多好多(149), 好久好久(106), 好長好長(31), 好遠好遠(27), 好大好大(24), 好小好小(2), 好深好深(1), 好高高高(8), 好早好早(2), 好難好難(9), 好低

유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很A很A’의 통사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很A’와 같으며, 이 점은 ‘通紅’ 등 상태형용사의 중첩 전·후 특징과 유사하다. 그러나 ‘很A很A’는 ‘很A’와 달리 술어와 보어로 충당될 때 ‘的’을 부가할 수 있으며, 수량구와의 사이에서 중첩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인 어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점은 성질형용사의 중첩과 유사하다.

2. ‘很A很A’는 객관적으로 ‘很A’보다 강한 정도의 의미를 표출하므로 그 문법적 의미는 “정도의 심화”로 봐야 한다. 그러나 묘사성은 ‘AA’보다 낮다. 형용사가 은닉한 상태성 또는 분출하는 정도의 크기를 보면 ‘很A’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의 중간 단계에 있다.

3. 술어로 충당된 ‘很A’에서 ‘很’은 정도 의미의 약화 또는 상실로 성질형용사의 술어 충당을 돕는 문법적 표지로 허화(虛化)되었으며, ‘很A’의 의미 역시 약화되었다. 따라서 약화된 의미의 강화를 도모하여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언어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很A很A’가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很A+很A’는 ‘通紅+通紅’ 등 상태형용사 중첩형의 유화(類化) 현상에서 비롯되었으며, ‘太A太A’, ‘好A好A’ 등 ‘단음절 정도부사+단음절형용사’의 중첩은 ‘很A+很A’의 유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첩의 기본 단위를 낱말로 한정할 것이냐, 구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는 사실 언어 자체의 특징과는 별개의, 즉 범위의 문제이다. 그

好低(2), 好重好重(1), 好輕好輕(1), 好近好近(5), 好慢好慢(2), 好美好美(6), 好苦好苦(1), 好冷好冷(6), 好沉好沉(6), 好坏好坏(2), 好恬好恬(3), 好快好快(3), 好黃好黃(1), 好香好香(6), 好熟好熟(1), 好疼好疼(2).

리고 문법 의미를 “정도의 심화”로 볼 것인가, “상태의 묘사”로 볼 것인가, “정도의 표출”로 볼 것인가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본식이 낱말이든 구이든, 또 그 문법적 의미가 무엇이든, 일정한 형식으로 중첩된 후 기본식과 다른 일정한 문법적 의미와 일정한 통사적 특징을 동반한다면, 이를 중첩으로 보는 것이 언어의 실제 현상에 더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 參考文獻 >

- 楊凡, <試析作謂語的“很+adj”組合>, 《和田師範專科學校學報》 28 : 3, 2008.7.
- 胡飛君, <<型世言>>詞語重疊研究>,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朴淑慶, <‘許多’, ‘好多’, ‘很多’, ‘不少’, ‘很少’의 문법적 특징>, 《中國言語研究》, 25, 2007.12.
- 汝淑媛, <對外漢語教學中相近表達式的用法研究>,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4.
- 關敏, <試談程度副詞“很”與“非常”功能的異同>, 《語言文字應用》, 2006.12.
- 李琳, <“很+adj”、“真+adj”及“AA的”語法功能辨析>, 《北方論叢》, 2005.3.
- 李增吉, 《HSK常用副詞精講精煉》(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王靜, <“很”的語法化過程>, 《淮陽師範學院學報》, 2003.4.
- 朱景松, <形容詞重疊式的語法意義>, 《語文研究》, 2003.3.
- 邢福義, 《商務漢語語法三百詞》(北京: 商務印書館), 2003.
- 元傳軍, <現代漢語形容詞重疊式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2.
- 李宇明, <論詞語重疊的意義>, 《語法研究錄》(第一版; 北京: 商務印書館), 2002.12.
- 朱德熙, <“很久”、“很長”、“很多”>, 《漢語學習》, 1989.1.
-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2.
- 朱德熙, <現代漢語形容詞研究>, 《語言研究》, 1956.1.
- 常國萍, <程度副詞很的非程度義>, 《科技信息(學術研究)》, 2008.21.

<中文提要>

從北京大學漢語言學研究中心的現代漢語資料庫，我們可以查到許多“很A”詞組的重疊式，如很多很多、很長很長等，可以出現在“很A很A”這格式裏的形容詞，其數量可觀，尤其已在語法化過程中的“很多”、“很久”等的出現頻率極高，而語法學界很少提到它們。因此本文對北京大學語言資料庫進行了窮盡性的搜索，並試圖分析描述它們的語法特征：

就其重疊形式、語法功能與語法意義來看，它們與“通紅通紅”等狀態形容詞的重疊式極為相似，如它們用ABAB來重疊；重疊後做謂語倒可以加“的”；其句法功能與基式大體相同；主要表示程度的加深等。而值得注意的是語序的突破，“很A”只能位於數量短語之後，而“很A很A”既能位於數量短語之前，又能位於數量短語之後，這點與性質形容詞的重疊式頗為類似。

“很A很A”的描寫性，並沒有AA式強烈，而它們的確表示程度的加深。最近有的認為形容詞的語法意義是隱現其程度性，而“通紅”等偏正式狀態形容詞，其程度量已經隱現，因此“通紅通紅”等並不是重疊，就是疊用。就其程度的隱匿性來看，“很A很A”就正處於性質形容詞與狀態形容詞之間。而且“很”在做謂語的“很A”結構中並不一定起加強程度的作用，它幾乎已經喪失了其程度義而只起足句作用。即“很”已經變為性質形容詞做謂語的一種標志。因此我們可以這樣說，“很”的虛化引起了“很A”的意義淡化，“很A”的意義淡化又引起了“很A很A”重疊式的產生。“很A很A”的產生是受狀態形容詞的ABAB式類推的結果，“好A好A”、“太A太A”等帶程度副詞的形容詞詞組的重疊式又受“很A很A”式類推的結果。

주제어 : 重疊, 疊用, 形容詞, 很, 語法意義, 狀態性, 程度副詞

